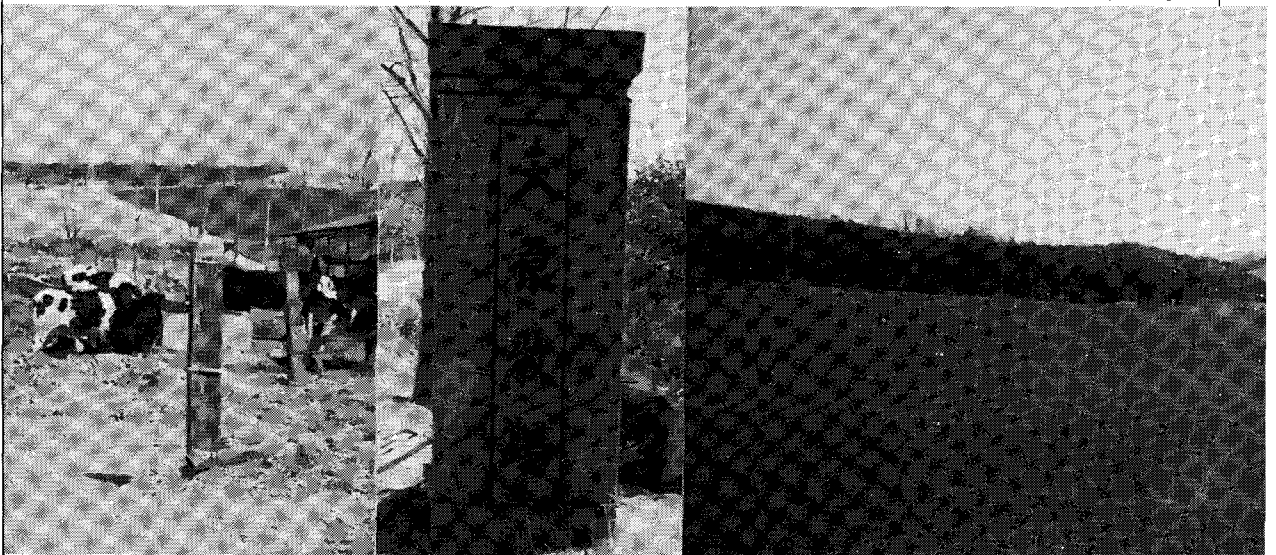


특 집

대규모 목장의 사양·시설을 알아본다.

UR 정면 돌파하고자 시설 자동화에 역점

천원목장 전경



○ **목장명**
천원목장

○ **목장연혁**
천원목장의 연혁은 문종건(작고)씨에 의해 76년

산지 30만평을 구입한 후 그해 5월 도입젖소 70두를 분양받아 낙농목장으로 출발 20여년 가까이 이어오며 아들 문희성씨가 2대째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현재는 전문경영인 지병국농장장(55세, 건국대 축산과 졸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목장주소**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38

○ **목장총사 인원**

지방국장장의 14명

○ **목장규모**

천원목장의 규모는 '94년 3월 현재

가) 목장총두수 : 511두

- 착유우 170두
- 건유우 59두
- 초임우 63두
- 육성우 86두
- 송아지(우) 64두
- 비육송아지(송) 69두

나) 목장부지 : 30만평

- 사료작물포 : 18만평

아지, 육성우, 건유우등 우사

- 사료, 건조, 볏짚, 엔실리지 저장 등 창고
- 2열 8두 헤링본 착유시설(81년)
- 4월 완공 목표로 신축중인 국내 최신식 착유 시스템 우사
- 농장장을 비롯 목장 관리자용 사택 11동(17평)
- TMR 배합기, 트랙터등 목장 관계 각종 농기계, 기구 및 기자재 완비

○ **목장 사양관리**

천원목장은 30여년 동안 현장에서만 근무한 실무경영인인 지방국장장(현목장 15년 근무)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완벽한 목장경영과 10여년동안 한사람도 이동없이 헌솔밥을 먹고 있는 목장관리자들과 함께 호흡이 척척 맞아 한사람이 관리하는것 처럼 목장경영에 있어 최상의 사양관리와 최고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다.



- 초지 : 45천평
- 우사 및 시설부지 : 25천평
- 임야 : 5만평

다) 목장시설 : 25천평

- 600평의 최신 후리스틀우사(200두 규모) 및 송

동목장의 종축개량은 82년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래 현재 90% 이상 혈통등록우이며 이들 소에서 얻어지는 송아지를 모두 목장내에 소화하고 있었는데 송아지는 카프히치(Calf-Hutch)에서 45일간 포유를 하면서 최상급 양질의 조사료(알팔파 건조)를 무제한

급여하여 키운다음 2~6개월 부터는 육성우 우사에서 5~8두씩 무리사양을 하며 6개월~15개월까지는 방목 사양을 하고 15~18개월까지 넓은 운동장 사양하며 초임우는 초임우 우사에서 분리 사양하고 있었다.

동목장은 송아지에서 부터 착유전까지 젖소로의 몸 만들기 준비를 계절별로 나눠 철저하게 사양관리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관리된 착유우는 본 우사로 입식되는데 200평 우사를 4등분하여 1군은 40kg 이상, 2군은 33kg이상, 3군은 22kg이상, 4군은 15kg이상 젖소를 유량별로 나누어 개체별 사양이나 TMR사료, 조사료를 구분 급여하고 있었다.

동목장은 년중 엔실리지등 알팔파 건초, 큐브, 벧짚등을 충분히 급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료 작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88년 부터 TMR를 자가 배합하여 급여하고 있었는데 지병국장장이 직접 알팔파, 면실, 전지대두, 물콩 등등 TMR 배합에 필요한 30여가지의 기초 원료를 최상품으로 직접 구입한 후 시험장을 통해 사료분석을 의뢰 성분분석하여 목장에 맞게 직접 배합비를 짜서 급여하고 있기 때문에 TMR 사료급여로 문제되는 번식문제나 대사성질병은 찾아볼 수 없고 동목장 TMR 사료급여후 유량과 유지방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분만한 소는 따로 사양하고 1주일 동안의 우유는 따로 집유를 하고 질을 높여가고 있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촉탁 수의사가 3일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하면서 철저한 예방위주로의 질병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고능력을 확보하고자 군별 사양관리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소, 고능력우라도 질병에 잘 걸리는 소는 과감하게 도태하여 선별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빈틈없는 목장경영으로 현재 천원목장은 일일 우유생산량은 4,300kg로 두당 평균 산유량이 25kg이상이고 유지방도 3.7%이상 나타내고 있었으며 유질관리도 철저 해 세균수 3만~7만, 체세포수 15~30만으로 고품질 제품인 저온살균 우유로 납품되고 있다.

○ UR 대비 정공법으로 나갈 계획

천원목장의 지병국장장은 개방화에서 외국의 선진

낙농과 이길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UR대비 정공법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현재 최신 착유시스템 우사를 4월중 완공예정이며 이외에도 목장시설, 기계시설등에 재투자 목장 현대화, 자동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유도 식품이므로 최고급의 신선한 우유를 생산량 보다는 질로서 경쟁할 채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며 외산과 경쟁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 제도적 지원이 확대가 필요

요즘 목장경영에 있어 인건비 상승, 시설자재 농기계 구입비등의 상승과 폐수단속 강화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으며 대규모 목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협회에서도 전 낙농가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결집을 하는데 경주해야 할 것이며 협회의 기금을 확보하여 낙농정책개발, 우유홍보, 농가지도 사업에 앞장서 농가들이 개방 대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대낙농가들도 앞으로 목장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 둘 것인가에 대해 빨리 결정하여 결심이 서면 목장경영합리화를 이루는데 끝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지장장의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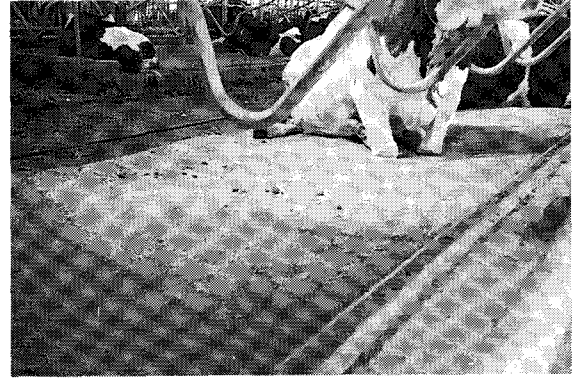
그동안 중소규모 목장만 취재하다 대규모 목장을 한번에 소개하자 하니 수박 겉핥기씩 밖에는 안되는 것 같다. 다음 기회에 송아지 관리부터 착유관리까지 질병관리, 조사료급여, TMR급여, 개량, 분뇨시설, 유질관리 등등을 각 단위별로 자세하게 게재하고자 한다.

대규모목장 취재를 하며 느낀 것은 이들도 목장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밤잠 안자며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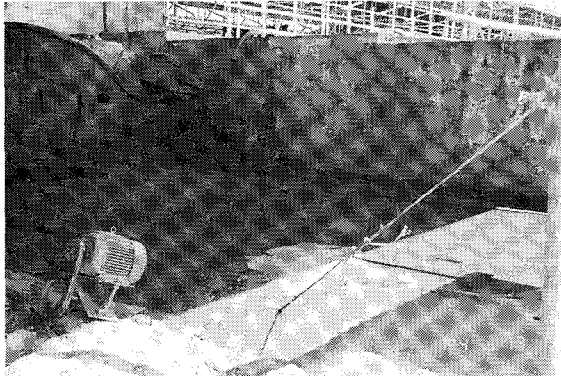
때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이다. 나라경제가 튼튼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하듯 낙농도 대규모도 전업농도 서로 동업종이란 인식하에 서로 도와주고 배워야겠다는 자세를 정립하여 경영합리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고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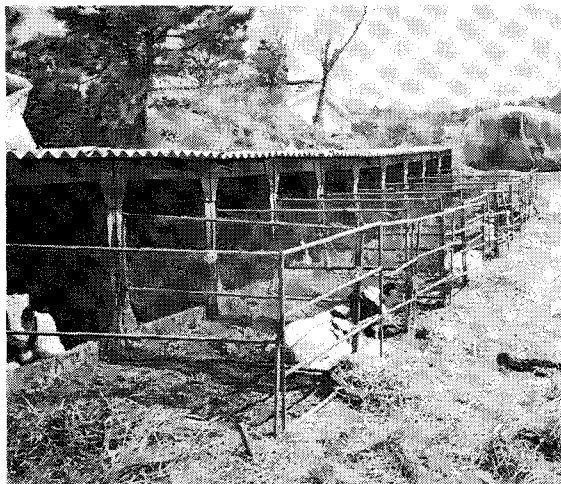
600평(200두 규모)의 최신식 후리스틀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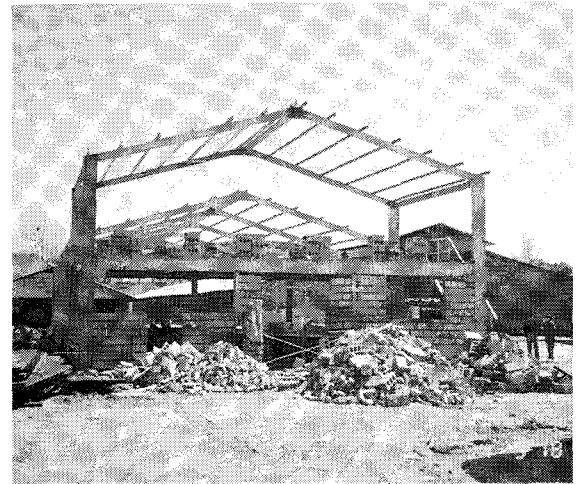
우상을 톱밥, 왕겨, 모래 등을 섞어 채운 후 갈판을 깔아서 쿠션이 좋아 소들이 아주 좋아해 우상의 휴식시간이 많다.



분뇨를 고액처리하고 있었는데 왼쪽이 우사내의 분뇨를 스크레퍼로 이용하여 모아 분뇨탱크에서 원심분리기로 돌려가며 충분히 썩이고 분해한 다음 고액으로 분리하고 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고체 분뇨이나 마른 흙을 모아 놓은 것 같다.



지방국장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여 널리 보급되었다는 카프치우사. 천원목장의 송아지는 동우사에서 45일간 포유되고 있으며 사진 앞에는 양질의 알팔파 건초가 보인다.



4월말 완공 목표 신축중인 최신식 착유시스템 우사.